

## 북한 2차 핵실험

### 3년전보다 강한 위력... 단거리미사일도 발사

#### 정부 국가안보회의... 개성공단 제외 방북 불허

북한이 25일 오전 9시54분께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006년 이후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하고, 오후에는 인근에서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관련기사 2·8면>  
정부는 이에 대한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 합의 의무를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 규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11시59분 '보도'를 통해 "또 한 차례의 지하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면서 "이번 핵실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되었으며 시험 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군사전문가들은 1kt(1kt는 TNT 폭약 1천t의 폭발력) 규모로 추정했던 1차 실험 때보다 위력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무수단리와 원산 지역은 이날 핵실험을 감행한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핵실험 정보를 탐지하려는 미·일 정찰기의 비행을 경고, 저지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관측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NSC)회의를 주재하고 "참으로 실망스럽다"면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되,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NSC는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소집된 것으로,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일본 독도 영유권 외교 기도에 따른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개최됐고 지난 4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두 번째로 소집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26일부터 개성공단 방문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 '노무현 현상'

盧前 대통령 서거 ▶ 관련기사 3·4·5·6·13면



25일 오후 옛 전남도청 앞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은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3일 설치된 이 분향소에만 1만 여명의 시민들이 찾은 등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니영주기자 mjna@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흘을 보낸 대한민국에 '노무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그였지만, 그 사실에 아랑곳없이 전국 곳곳에서 '우리 대통령'을 부르짖으며, 국화 한 송이를 든 추모 행렬은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봉화마을 빈소에만 조문객이 30만 명을 넘어섰고, 전국적으로 그를 추모하는 행렬은 25일까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김해의 국화는 동이 났고, 전국 곳곳의 분향소에는 주부 노인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노무현 현상'은 우리사회의 비주류, 못가진 자들이 자신의 대변자를 잃은 데 대한 슬픔에서 시작돼 우리사회의 주류, 가진자들에 대한 조용한 경고로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창피주기 식 수사를 한 송이를 든 추모 행렬은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개인적으로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자살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과거의 가치로 회귀하는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동이 났고, 전국 곳곳의 분향소에는 권위주의와 지역주의 타파, 국가의

### 남녀노소 없는 조문 전국 장사진 국화 동나고 지자체 행사 잇단 취소 과거회귀 기대권층에 '조용한 경고'

들의 조문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조문의 모습도 매우 강렬하다. 조문객들 중에는 가족이나 친지의 장례처럼 흐느끼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마다 개설된 추모의 글 코너에는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것 같은 애도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서울·부산·광주 등 거의 모든 지자체는 물론 청와대까지 공식일정이나 요란스러운 행사를 취소하거나 미루고 있다. 끝까지 '적'으로 남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도, 검찰까지도 그의 마지막 선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이 '죽어버린 권력'의 예기치 못한 선택에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균형발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은 정권이 바뀐 뒤 국가 공권력 강화, 지역차별 정책, 수도권 중심 발전, 기득권층 우선 정책 등으로 뒤바뀌고있는데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된 것이다.

'노무현 현상'은 박연차 게이트의 진실, 즉 노대통령이 검은 돈 얼마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를 휴지조각처럼 만들어 버린채 노무현이 추구했던 '특권·반칙·차별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가치를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더 깊숙이 각인시키고 있다. 송기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광주·전남 추모위원회 추모위원장은 "모두가 울고 있다. 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는가"를 묻고 "권위가 없었던 권력자였지만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고,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다는 징표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경복궁 영결식 잠정결정

### 장의위원회 "29일 오전 11시 거행"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오는 29일 오전 11시 경복궁 앞 뜰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Package  
부부예상식 27,000원 부터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6000

에서 거행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5일 "영결식 일시와 장소는 일단 5월29일 오전 11시 경복궁 앞 뜰로 결정됐다"며 "다만 지금 경복궁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그 부분을 감안, 최종 결정은 내일중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노제는 인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임채진총장 23일 사표 법무장관이 어제 반려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에 김경환 법무부 장관에게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25일 오후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5면〉 임 총장은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이 급작스레 서거했다는 비보를 접한 직후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결심, 그날 오전 10시30분께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사직서를 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대검찰청은 전했다. 대검은 그러나 김 장관이 "사태 수습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직서를 이날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7 광주야생초 추천 제주도 여행 상품!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하는 즐거운 제주도 여행  
KBS 1박2일 "올레길" 탐방  
Korea Travel Service